반세기 맞은 '부산불교거사림회' 기념법회

10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서

공병수 前 회장 추모, 재가 수행 모범
김기추 금강경독송회 · 양흥모 주도해
1972년 부산 거사 20여 명으로 시작돼


부산불교거사림회가 10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 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후 기념촬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거사림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재가불교의 중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배호암, 이하 거사림회)가 10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 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지안 스님(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혜총 스님(前 조계종 포교국장), 배호암 거사림회 회장, 배태순 법계정사 신도회장, 안성이 보현회 회장, 정분남 삼보회 회장, 황형모 동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현익채 前 금정중학교 교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의원,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의 축전도 이어졌다.

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연혁보고 △감사보고 △인사말 △내빈소개 △축사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거사림회는 먼저 부산불교신도회를 이끌고 거사림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공병수 前 회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공병수 前 회장은 지난 7월 23일 84세로 타계했으며 부산 재가불교운동의 주역으로 대학생 청년포교 후원에 앞장서 왔다.

배호암 회장은 공병수 前 회장의 활동을 회고하며 "공병수 회장님은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를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다. 많은 대학생 불자들과 청년들을 위해 전국 사찰순례를 다니고 포교에도 앞장서 끝까지 유마거사와 같은 재가 수행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며 "공 회장님께서 오늘같이 좋은 날 살아계셨다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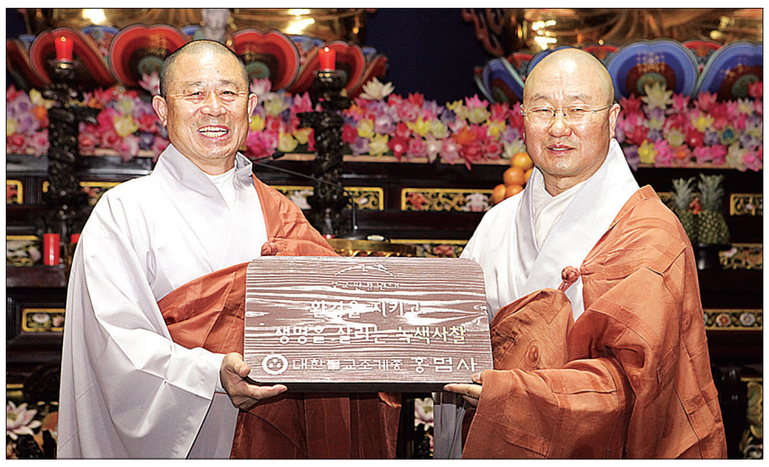
혜총 스님은 "거사림회가 부산불교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다른 신행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대했다. 공 회장님이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 채워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며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흥망성쇠를 겪듯이 거사림회도 이와 같을 것이지만 창립 당시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나가고 있으니 다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온 수행 정진 원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지안 스님은 "불도 부산에서 거사님들이 모여 새로운 불교신행을 위해 깃발을 들고 거사 바람을 일으킨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부산거사림회가 재가포교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지역불교와 한국불교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50주년 맞으신 것을 축하한다"며 "지금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졌는데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불교의 취지는 부처님 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더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거사림회가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란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부산 불자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불교거사림회는 1972년 7월 31일 효봉 스님이 인정한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5)의 '금강경독송회' 강연과 불교신문(당시 대한불교) 부산 지사장 故 양흥모 씨의 주도로 모인 부산 남성 불자 20여 명으로 시작됐다. 모임은 부산 거사불교의 초석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감로법문에 목마른 재가불자들과 법문의 현장을 잇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세가 강한 부산에는 보살불교만 있는가. 수행과 덕을 쌓는 거사불교를 활성화시키면 부산불교는 더욱 번창하리라' 는 원을 세우고 출범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 문현동 호명사와 소림사 등에서 자체 법회를 봉행했으며, 경봉 스님을 시작으로 석암, 향곡, 고암, 청하 스님 등 대선사의 법문을 비롯해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김지견 박사 등 불교학자들이 높은 수준의 강연으로 법석을 이어왔다.

부산 홍법사 녹색사찰 등록

10월 25일, 경내 초하루 법회에서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식
녹색환경운동 실천 환경보살 서원



홍법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가 10월 25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녹색사찰로 등록하며 지구와 미래 인류를 위해 녹색환경운동을 펼치는 환경보살이 될 것을 서원했다.

홍법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가 10월 25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홍법사-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 과제인 환경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유정길 운영위원장이 녹색사찰의 활동 및 향후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심산 스님은 "불교환경연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단체"라며 "오늘 이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환경보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도 스님은 "불교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대비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하는 종교"라며 "일체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환경을 위한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협약은 녹색사찰 실천사항들을 인지하고 일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의식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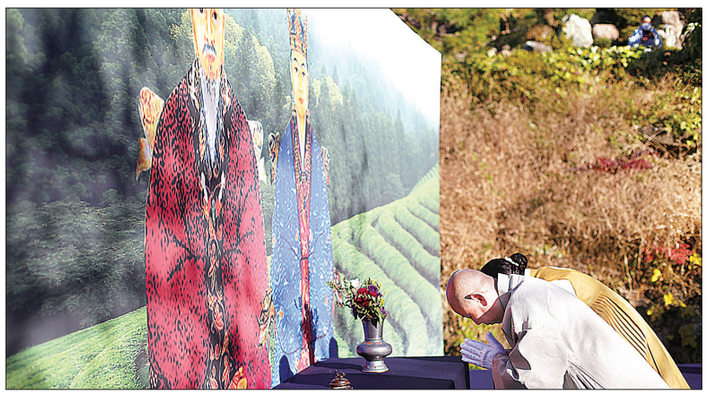
유정길 운영위원장은 "불교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불살생을 주요 가르침으로 삼는다. 환경보호는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경보호는 즉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홍법사 불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금지, 빈 그릇 실천 등 녹색사찰 실천사항에 앞장서며 녹색사찰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법회, 환경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9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개최

11월 6일,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공원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11월 6일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공원에서 '2022 제9회 부산 기장 국제 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매년 국내 차인들의 차문화 교류와 국제 한 · 중 · 일 문화교류의 장으로 차(茶) 축제를 열고 있다.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에 개막해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허황후 헌다례'와 전국의 차인들이 꾸미는 '찻자리 대전'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차시연을 함께 보며 차문화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에도 차인들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은 최고의 치유를 선사했다"며 "부산국제차문화축제는 차를 도구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며 국제교류로 국가 간 화합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다. 전국 차인들의 찻자리로 깊어가는 가을을 함께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안적사, 사천왕재 및 예술축제

국태민안 기원, 가을 예술축제
길상성취 사천왕재 회향
소프라노 김나정 등 공연
"지역민 쉼터로 함께해"



부산 기장 천년고찰 안적사(주지 원여)가 10월 20일 경내 사천왕문 앞 마당에서 '불기 2566년 안적사 사천왕재 예술축제'를 봉행했다.

안적사는 이번 사천왕재를 통해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가을 산사의 정취를 함께 공유하는 예술축제를 진행했다.

사천왕재는 행사에 앞서 3일 동안 봉행한 '길상성취 사천왕재'를 회향하는 법회를 개최해 의미를 전달했으며 예술축제에서는 부산 내셔널 금광 5중주, 소프라노 김나정, 테너 김정권, 태평소, 피리 김형준, 승무북 최오성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안적사 주지 원여 스님은 "호법신인 사천왕은 삿된 기운을 막는 호법신장이자 든든한 외호자이다. 국가의 어려움과 부산의 경제난을 회복하고 발전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천왕재는 3번째이며 지역민과 더욱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예술음악회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쉼터로 함께하는 사찰이 되고 가을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적사는 범어사 말사이며 원효대사가 신라 문무왕(서기 661년) 시대에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순례 중에 안적사 터의 상서로움을 느껴 창건할 사찰로 알려져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

11월 12일~13일, 경주 황룡원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정무)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나의 절친은 자기친절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 첫 번째 강의는 서광 스님의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자기연민(Mindful Self-Compassion For Teens)'으로 문을 연다. 서광 스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이며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두 번째 강의는 이경미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치유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푸드테라피가 진행된다. 다음날 이어질 강의는 '토닥토닥 따스함을 느껴요'와 '친절한 주의 기울이기-연민어린 바디스캔', '쓰담쓰담 쉼 해요', '내 마음의 글을 써요' 등 마음챙김을 통한 자기 연민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051)864-4569~7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벽선암, 개산 81주년 기념

10월 23일, 6년 불사 회향


사단법인 야단법석 벽선암(주지 혜진)이 10월 23일 경내에서 '개산 81주년 기념 탑조성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벽선암 혜진 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종회의장 진산 스님, 전승보존회 도각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법규원장 지호 스님, 안정사 다여 스님, 원각사 지공 스님, 서장사 불성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바라밀선원 주형 스님을 비롯한 박천동 북구청장, 김용석 신도회장, 김용호 원효종 중앙신도회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공로패 전달, 경과보고, 내빈소개, 인사말 및 격려사, 축사, 찬불가, 사홍서원, 공지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또 오층금강보탑 및 공덕비 제막 등 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주지 혜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울산불교의 공찰이 되고자 야단법석을 설립하고 6년간 불사를 진행했다. 오늘은 천일기도 회향과 창건 81주년을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단법석 창건 이념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물들이고, 향기로운 실천으로 사회를 물들이고, 풍요로운 나눔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이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4회 산청불교문화제전 성료

생명가치 강조 · 생명에 평화기원 서원


산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완)가 10월 22일 산청 겁외사 옆 성철공원 특설무대에서 산청불교문화제전을 개최했다.

산청불교사암연합회는 이번 문화제전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은 생명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서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산청불교연합회장 정취암 수완 스님,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 덕산사 동조 스님, 대원사 기현 스님, 심적정사 혜범 스님, 문수암 기영 스님, 왕복사 자우 스님, 옥천사 마가 스님, 무불관 철현 스님을 비롯한 산청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승화 산청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의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안정임 진주불교회관 부이사장, 경상국립대불교학생회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법사이운이 진행됐으며 개회선언, 삼귀의, 청법가, 법어, 축사, 방생의식, 방생이운, 문화공연, 괘불이운, 상단공양, 위령제, 영가시식, 사홍서원, 회향 순으로 이어졌다.

산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수완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방생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불교문화제전으로 고통 받은 인류에게 희망과 자유,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